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임세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of Nursing Students

Semi Lim

Student, Graduate School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19년 5월에서 6월까지 G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상간호인성과 스트레스 대처로, 이들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을 38.2% 설명하였고( $F=43.973$ ,  $p=.000$ ),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로 나타났다( $\beta=.508$ ,  $p=.000$ ).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위해서 임상간호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 correlation of clinical nurse's character,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and factor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on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to use it as a basic data in develop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promotion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mposed of 145 students who were studying in fourth year student at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2019. Data analysis included an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nursing professional value of thos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linical nurse's character,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In a regression analysis, nursing professional value accounted for 38.2%( $F=43.973$ ,  $p=.000$ ), of the variance of clinical nurse's character and stress coping.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on the success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was stress coping( $\beta=.508$ ,  $p=.000$ ).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linical nurse's character and applying variety stress coping method for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 valu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nurse's character,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Nursing students

### 1.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6년 69.8%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반면에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7년 12.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2].

\*Corresponding Author : Semi Lim(nccsemi@gmail.com)

Received March 18,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April 20, 2020  
Published May 28, 2020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는 약 1,600만 명이며[3], 우리나라 보건인력 중 간호사는 182,679명(3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4].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9,166명으로 2011학년도에 비해 31%(6,969명)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5], 취업난에도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본인 스스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취업률과 전문간호직에 대한 막대한 동기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 및 전공만족도, 학업 적응, 독립성은 낮은 편으로,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6-8],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과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9],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립되는 시기는 학교의 기본교육을 기초로 졸업 후 3~5년 사이로[10] 뚜렷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간호대학생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실에서 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호사로서 충분한 인성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대학에서 계속되어야 하며[11],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인성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학과 특성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높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2]. 임상실습을 시작한 간호대학생들은 교내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면하게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표현하면서도 간호전문직 현장에 투입되는 낯선 환경에 부담감을 보인다[13].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아내며[13], 대처방법을 사용하면서 잘 견디어 내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진될 수 있고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공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될 수도 있다[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임상간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업성 핵심요소의 관계[15,16], 임상실습교육환경, 의사-간호사 협력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17], 대학환경풍토, 윤리적 민감성간의 관계[18], 진로준비행동[19]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환경의 환자와의 관계, 학생 만족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경험은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인 경험은 간호전문직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인성 정도가 높고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17,20]를 토대로 인성도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 전문의료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이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5월에서 6월까지 K시 소재 D대학 간호학과 4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의 산출은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은 0.8로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28명으로 산출되었다. 총 153부를 설문하였고 회수된 자료를 검토하여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한 14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건강상태, 대인관계, 간호학과 입학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 2.3.2 임상간호인성

임상간호인성은 Park[15]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요인으로 책임, 열정, 근면, 침착, 진실함, 신용, 친절, 경청, 공감, 협력, 예절, 정중함,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3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간호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5$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2.3.3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Whang[1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개의 영역으로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8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낀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 2.3.4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는 Lazarus와 Folkman[17]이 개발하고 Hwang[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개의 영역으로 적극적 대처(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소극적 대처(정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이었다.

### 2.3.5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9]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전문직 자

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9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2$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설문지 도중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 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간호전문직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분석은 ANOVA와 t-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7명(11.7%), 여학생이 128명(83.3%)이었고, 연령은 20-24세가 109명(75.2%)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87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상태와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 각각 67명(46.2%), 82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54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각각 70명(48.3%), 74명(51.0%)으로 가장 많았다. 학업성적은 3.0-3.4점이 55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 3.2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임상간호인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76±0.37점,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3.32±0.63점,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5점 만점에 3.48±0.50점,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3.62±0.5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7(11.7)
	Female	128(88.3)
Age	20-24	109(75.2)
	25-29	27(18.6)
	>=30	9(6.2)
Religion	Christian	34(23.4)
	Catholic	9(6.2)
	Buddhist	13(9.0)
	None	87(60.0)
	Others	2(1.4)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30(20.7)
	Good	67(46.2)
	Moderate	38(26.2)
	Poor	10(6.9)
Relationship of friends	Very good	22(15.2)
	Good	82(56.6)
	Moderate	36(24.8)
	Poor	5(3.4)
Admission motive	Aptitude	36(24.8)
	Recommend	37(25.5)
	High employment rate	54(37.2)
	Others	18(12.4)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action	20(13.8)
	Satisfaction	70(48.3)
	Neutral	39(26.9)
	Non-satisfaction	16(11.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action	10(6.9)
	Satisfaction	74(51.0)
	Neutral	43(29.7)
	Non-satisfaction	18(12.4)
Last semester grade	4.0-4.5	13(9.0)
	3.5-3.9	52(35.9)
	3.0-3.4	55(37.9)
	<3.0	25(17.2)

**Table 2. Level of Clinical nurse's character,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Variables	M±SD	Min	Max
Clinical nurse's character	3.76±0.37	2.75	4.68
Clinical practice stress	3.32±0.63	1.57	4.91
Stress coping	3.48±0.50	1.54	5.00
Nursing professional value	3.62±0.50	2.00	5.00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

Table 3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친구와의 관계(F=4.22, p=.007), 입학 동기(F=2.95, p=.035), 전공 만족도(F=6.28, p=.000), 임상실습 만족도(F=9.02,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적성에 맞아서 입학한 학생이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전공에 매우 만족한 학생이 만족이나 보통, 불만족한 학생보다, 임상실습에 매우 만족한 학생이 만족이나 보통, 불만족한 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Level of Clinical nurse's character,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p)
Gender	Male	3.66±0.52	0.34(.730)
	Female	3.62±0.50	
Age	20-24	3.62±0.50	0.86(.425)
	25-29	3.59±0.54	
	>=30	3.84±0.29	
Religion	Christian	3.58±0.50	0.31(.869)
	Catholic	3.75±0.45	
	Buddhist	3.56±0.53	
	None	3.64±0.51	
	Others	3.72±0.14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3.69±0.57	1.43(.234)
	Good	3.69±0.44	
	Moderate	3.49±0.52	
	Poor	3.56±0.53	
Relationship of friends	Very good <sup>a</sup>	3.89±0.55	4.22(.007)* (a>c)
	Good <sup>b</sup>	3.65±0.46	
	Moderate <sup>c</sup>	3.44±0.47	
	Poor <sup>d</sup>	3.50±0.58	
Admission motive	Aptitude <sup>a</sup>	3.77±0.38	2.95(.035)* (a>b)
	Recommend <sup>b</sup>	3.44±0.45	
	High employment rate <sup>c</sup>	3.67±0.56	
	Others <sup>d</sup>	3.62±0.53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action <sup>a</sup>	3.89±0.37	6.28(.000)* (a>b)>(c>d)
	Satisfaction <sup>b</sup>	3.71±0.39	
	Neutral <sup>c</sup>	3.44±0.52	
	Non-satisfaction <sup>d</sup>	3.38±0.73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action <sup>a</sup>	4.00±0.38	9.02(.000)* (a>b)>(c>d)
	Satisfaction <sup>b</sup>	3.74±0.42	
	Neutral <sup>c</sup>	3.53±0.46	
	Non-satisfaction <sup>d</sup>	3.21±0.66	
Last semester grade	4.0-4.5	3.77±0.43	1.65(.179)
	3.5-3.9	3.71±0.54	
	3.0-3.4	3.57±0.51	
	<3.0	3.50±0.37	

\*:scheffe test

### 3.4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Table 4와 같이 대상자의 임상간호인성은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r=.10$ ,  $p=.200$ ), 스트레스 대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52$ ,  $p=.000$ ), 간호전문직관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r=.44$ ,  $p=.000$ ).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32$ ,  $p=.000$ ),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29$ ,  $p=.000$ ). 스트레스 대처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60$ ,  $p=.000$ ).

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nurse's character,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Variables	CNC	CPS	SC	NPV
	r(p)	r(p)	r(p)	r(p)
CNC	1			
CPS	.10 .200	1		
SC	.52** .000	.32** .000	1	
NPV	.44** .000	.29** .000	.60** .000	1

\*\* $p<.001$  CNC: Clinical Nurse's Character, CPS: Clinical Practice Stress, SC: Stress Coping, NPV: Nursing Professional Value

###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와 같이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에 대한 차이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친구와의 관계,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변수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변수를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친구와의 관계,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43.97$ ,  $p=.000$ ),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72로 1.0이하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381로 10 미만임을 확인하여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 $\beta=.50$ ,  $p=.000$ ), 임상간호인성( $\beta=.17$ ,  $p=.025$ ) 순이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을 38% 설명하였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96	.34		2.81	.006
SC	.51	.07	.50	6.55	.000
CNC	.23	.10	.17	2.25	.025
$R^2$ (Adjusted $R^2$ )=.38(.37), $F=43.97$ , $p=.000$					

SC: Stress Coping, CNC: Clinical Nurse's Character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와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임상간호인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Yeom과 Seo[25]는 3.62점, Han 등[26]의 3.84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임상간호인성 정도를 보여주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Han 등[26]의 연구에서 직위가 높아질수록 임상간호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인성 정도가 간호사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임상간호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간호학과 교수들의 큰 과제이다.

본 연구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Whang[27]은 3.56점, Park과 Park[28]은 3.24점, Yang 등[29]은 3.57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간호대학생 4학년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점수는 3.61점[27], 3.34점[28]으로 3학년에 비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간호대학생들이 중등도 이상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간호대학생 4학년의 경우, 국시와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3학년보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로 판단하여 3학년은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3학년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점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Min[30]의 연구에서는 3.32점, Noh[31]의 연구에서는 3.31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4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2.56점[32], 2.40점[33]으로 비슷한 수준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3학년보다 4학년이 스트레스 대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31,34], 본 연구에서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로 3학년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스트레스 대처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35]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더 많은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와 Jil[17]의 연구에서는 3.70점, Kim과 Joung[18]의 연구에서는 3.82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보통 수준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와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토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o와 Kim[1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평균 점수(3.66점)가 여학생의 평균 점수(3.62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이 지각한 간호이미지에 대한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고, 그 중에서도 전문적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난 Joo와 Shin[36]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Ko와 Kim[19]의 연구는 입학동기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Jeong과 Koh[37], Jo 등[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를 받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어떤 스트레스 대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39].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와 임상간호인성으로 나타났다. Kim 등[32]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o와 Kim[19]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높고,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러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높은 임상실습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적이며, 이는 곧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9]에 근거하여, 동아리 활동에는 봉사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임상간호인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간호학 교수의 77.8%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성교육은 간호교육만큼 중요하며, 교육요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충분한 인성교육을 받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간호인성은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40], 일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보다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간호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지역의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을 제한시켰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임상간호인성과 스트레스 대처가 중요 요인임을 알게 되었고, 입학동기, 친구와의 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4년간의 대학생활의 과정을 통해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상간호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1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확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상간호인성과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6). *College enter rate*, Statistics Korea(Onlin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61305](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61305)
- [2] Statistics Korea. (2017). *Youth unemployment rate change*, Statistics Korea(Online).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 [3]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13). *About ICN*, ICN(Online).  
<http://www.icn.ch/about-icn/%20about-icn>
- [4]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2017). *Classification work force condition(Nurse and others)*, Statistics Korea(Online).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 [5] Ministry of education. (2016). *2016 school year nationwide college recruit unit admission quota*, Ministry of education(Online).  
<https://www.moe.go.kr/newsearch/searchTst.jsp>
- [6] J. A. Park & E. K. Lee.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 [7] Y. K. Kwa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DOI : 10.5762/KAIS.2013.14.5.2178
- [8]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9]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0] K. J. Cho & S. N. Park. (2004). Comparing nursing perspective between BSN and RN-BSN program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4), 417-425.
- [11] J. H. Park. (2013).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6), 3321-3332.
- [12] J. W. Lee & Y. S. Eo. (2013).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2), 125-134.  
DOI ; 10.12811/kshsm.2013.7.2.125
- [13] S. Y. Kang. (2016).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1, 9-19.
- [14] M. J. Kim & S. Y. Yoo. (2014). The perception-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2(1), 105-118.
- [15]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 [16] H. H. Cho & N. H. Kim. (2014).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 [17] E. K. Lee & E. J. Ji. (2016).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2), 126-135.  
DOI : 10.7739/jkafn.2016.23.2.126
- [18] Y. K. Kim & M. Y. Joung. (2019).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115-124.  
DOI : 10.5977/jkasne.2019.25.1.115
- [19]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 [20] M. R. Lee & M. H. Nam. (2017).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6), 427-437
- [21] J. H. Park.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e's character scale for care in clinical setting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137-151.  
DOI : 10.5977/JKASNE.2016.22.2.137
- [22] S. J. Whang. (2002).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14(1), 35-54.
- [23] R. S. Lazaru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24] Y. K. Hwang. (2013).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mpus life satisfaction,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rur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25] E. Y. Yeom & K. W. Seo. (2019). Influence of interpersonal problem and clinical nurses character on burnout of staff nur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4(1), 33-42.
- [26] S. J. Han, J. W. Oh, B. Y. Huh & H. W. Kim. (2020).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nurse's character and happiness for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6(1), 22-30.
- [27]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 - efficacy, and self -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28] S. J. Park & B. J. Park. (2013).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4), 313-322.
- [29] Y. K. Yang, K. S. Han, M. H. Bae & S. H. Yang.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 23-33.
- [30] E. S. Min. (2018).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3(1), 71-78.  
DOI : 10.15715/kjhcom.2018.13.1.71
- [31] G. O. Noh. (2018).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rategy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6(1), 25-34.  
DOI : 10.17333/JKSSN.2018.6.1.25
- [32] S. Y. Kim, T. H. Kim, S. H. Hong, J. J. Park, A. Y. Jeon & H. J. Kim. (2017).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2), 577-592.  
DOI : 10.14257/ajmahs.2017.12.34
- [33] S. J. Shin & M. S. Ju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5), 441-455.  
DOI : 10.22143/HSS21.7.5.23
- [34] I. S. Park & Y. J. Han. (2017).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identity, stress management, and satisfaction for major class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7(1), 145-167.



- [35] E. J. Jung & C. Y. Ahn. (2012). Gender influences on the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The Women's Studies*, 82(1), 137-162.
- [36] M. K. Joo & G. Y. Shin. (2012).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510-521.  
DOI : 10.5977/jkasne.2012.18.3.510
- [37] Y. J. Jeong & C. K. Koh. (2016).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ping Behavi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4), 296-302.  
DOI : 10.17547/kjsr.2016.24.4.296
- [38] E. J. Jo, J. M. Kang & K. M. Lim. (2017).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94-104.  
DOI : 10.5762/KAIS.2017.18.3.94
- [39] H. J. Park & I. S. Jang.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 [40] S. K. Lee, S. N. Park & S. H. Jeong. (2012).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4), 460-473.  
DOI : 10.11111/jkana.2012.18.4.460

##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박사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 E-Mail : nccsemi@gmail.com